

추석 앞두고...영광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홍농읍 주민들, 환경관리센터 폐쇄·주민 집단 이주 요구 반입 막아 "오염 물질 배출로 10년 넘게 고통"…군 "특별한 대책 없어 안타깝다"

영광군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지역주민들이 영광환경관리센터 폐쇄를 요구하며 쓰레기 반입을 8일째 막고 있어서다. 특히 생활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불편이 우려된다.

24일 영광군과 홍농읍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구역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쓰레기만 일부 수거하고 있다.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절반만 수거해 법성면 영농폐기물 수집장과 사용 정지된 매립장에 임시로 야적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곳곳에 방치돼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같은 쓰레기 대란은 홍농읍에 있는 영광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홍농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18일부터 환경관리센터 폐쇄와 주민 집단 이주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같은달 25일 주민대표 8명이 영광군수를 면담, 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환경관리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의 진입을 막고 있다. 또 21일에는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환경관리센터 대체 시설인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의해 막혀 환경관리센터 폐쇄가 불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광군의회는 지난 7월31일 홍농읍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의 사용연료 승인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영광군은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영광군과 의회는 열병합발전시설이 주민 건강과 농·수산물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시설은 환경부가 안전성을 검증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주병규 주민대책위원장은 "영광열병합발전시설은 환경부가 안전성을 검증했고 주민 소득 창출과



영광 홍농읍 주민들이 영광환경관리센터 폐쇄를 요구하며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지역발전을 위해 유지한 환경시설"이라며 "영광군과 의회가 주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10년 넘게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영광환경관리센터를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10년 넘게 악취와 침출수 배출을 참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영광군과 의회는 오

염물질 배출시설 폐쇄와 주민 생존권 보장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나주시 '문화재 활용사업' 6건 모두 선정

11억 확보...고용창출·관광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기여 기대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서 총 6건의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문화재 야행,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5개 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건 등이다.

나주시는 올해도 전체 응모 사업이 모두 최종 선정돼 사업 기획·추진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10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대표 체험프로그램에는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가 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는 3년 연속 우수사업 선정을 통해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금성별곡, 별보 별묘달보성'을 주제로 총 8종의 야간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도면 소재 천년고찰 불화사를 무대로 진행하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사업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를 주제로 전통 산사와 관련한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여기에 남파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스테이'는 고택·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재 활용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가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학생들이 향교 상읍례 체험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사업 대부분이 축소 또는 취소된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응모한 모든 사업이 선정돼 천년목사고를 나주의 역사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별 전문 인력 발굴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부모님 걱정되시나요...추석 명절 해남군이 보살필게요"

코로나 확산 방지 고향방문 자제 당부 효도 종합선물 전달·영상통화도 연결

"부모님 걱정마세요...해남군이 보살필게요"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웃과 합

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나기 위해 취약계층 돌봄을 적극 추진한다.

자녀 방문 등이 줄어들면서 외로운 명절을 보내게 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 종합선물세트도 지급한다.

선물세트는 식료품과 명절나기 식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고위험 노인맞춤 대상자 1000명에

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를 비롯해 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뵙고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들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연결해 안부를 전할 계획이다. 영상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사진과 문자도 전송해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이 취약한 어르신에게는 대체식을 배달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앞서 해남군은 지역 내 노인 8144명에게 사랑의 승편 나눔행사도 진행했다. 14개 읍·면 공직자와 자원봉사단체 500여명이 어르신을 찾아 승편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해남군은 올해 초 공직자들이 성금을 마련해 4278명에게 3회에 걸쳐 사랑의 꾸러미를 지원한데 이어 지난 8월에도 팜글해남 희망더하기를 통해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나눔의 손길을 전달했다.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여름 휴장 마치고 내일 재개장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이 26일 재개장한다. 상반기 뚝방마켓 운영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이 여름철 휴장을 마치고 26일 재개장한다. 뚝방마켓은 '뚝방정원'에 개설됐으며 버스킹, 놀이공간, 쉼터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 뚝방스쿨 '누가누가 잘하나' '뚝방의 보물찾기' 등 월별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가 펼쳐진다.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 9차례 마켓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하반기에도 철저한 방역을 유지하고, 운영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판매자 간 테이블 거리도 2m 이상 거리를 뒤배치하고, 거리 두기 계도 요원도 배치한다.

하반기에는 신규 구축한 뚝방정원과 함께 다양한 신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뚝방마켓조합 측은 "철저한 준비로 마켓을 안전하게 운영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무안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추석전 지급 '공무원 1마을 담당제'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기준일은 9월2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총 8만4387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무안 연꽃축제와 청년축제 등 행사성 경비 2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여비 등 공공분야 경상경비 28억원 절감 등 강도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약 8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을별로 '공무원 1마을 담당'을 지정해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주요 방역수칙도 적극 홍보해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